

## “A Stepping Stone for the International Arts Ecosystem”

Meaning of the IFACCA Asian Chapter Meeting  
told by Lee Suan Hiang, Chairman of the Asian Chapter

The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NAC) has been in charge of obligations or duties of the Chair since the inception of the Asian Chapter of the IFACCA. What were the major roles of the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in organizing Asian Chapter meetings and in facilitating secure network communication among Asian Chapter members?

As a founding board member of the IFACCA, the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initiated the setting upon an Asian Chapter in 2002 with the objective of creating an Asian platform within the IFACCA framework to build closer ties and promote understanding, collaboration and sharing among Asian member countries. The framework for constitution was passed in 2003 in Singapore and the Chapter was formalized in 2006 in Hong Kong where I was elected Chairman of IFACCA Asian Chapter. As the Chair of the Chapter concurrently holds Secretariat responsibilities for the duration of the appointment, NAC has facilitated several

annual meetings with host countries such as UK, Hong Kong, Mongolia and Australia,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s and liaisons with the IFACCA secretariat.

NAC also spearheaded the development of two collaborative projects - the Handbook on Arts Funding Policies in Asia and the Arts Advocacy in Asia Project. The Handbook aims to provide an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for mutual learning in arts funding policies and practices. It will also identify common stands across countries, best practices in arts funding and benchmarks and performance indicators. The Handbook will also enhance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rts funding.

Can you tell me how the Asian Chapter has been positioned and wants to be positioned among the IFACCA's member countries?

The Asian Chapter of the Federation was established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 Lee Suan Hiang

Chairman, IFACCA Asian Chapter

Chief Executive Director,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리수안향, IFACCA 아시아 지역회의 의장 및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사무총장



in mind:

- (a) Build inter and intra-regional networks between IFACCA member countries and affiliate countries in Asia, promote understanding and enhance cooperation between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 (b) Promote a consolidated platform for the sharing and exchange of collective knowledge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 (c) Strengthen the capacity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to meet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policy-making and funding issues; and
- (d) Further the following objectives of the Federation :
  - Benefit artists, arts and cultural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world-wide by creating an international resource and meeting ground for all those whose public responsibility it is to support excellence and diversity in artistic and cultural endeavor;
  - Build global networks, promote understanding and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 Strengthen the capacity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to meet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 Consolidate the collective knowledge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and -Encourage public support for the practice of the arts and cultural diversity.

**In the beginning, what outcomes were expected from the Asian Chapter? Now, how do the initial goals have been kept or changed? Are there any specific reasons if there are any changes?**

The chapter is still young but is on track to achieve its goals set out on 2005(as explained above in answer to question 2). Plans for rolling out the current focus projects have been made and committed to over the next 3 years.

**In order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mong Asian countries, what kind of efforts do you think should be made? Please answer in a specific way.**

First and foremo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mmon ground of understanding, particularly on the basics of arts definitions and terminologies.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Asia, as while there is commonality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the cultural diversity in these countries may make Asian funding policies unique to this region. When we share the same vocabulary and speak the same language for the arts, we can better develop systems to collect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benchmarking purposes.

Over the last 3 years, the chapter has provided a springboard for establishing bilateral arts relations between Asian countries. Increasingly, we are seeing more international visits, artist exchanges, MOU signing and artworks collaboration among the members, which are beyond the original scope of the Chapter. It is about creating opportunities and providing a stepping stone for the international arts

ecosystem to grow organically, rather than to dictate a specific agenda, as arts, being a creative industry is fluid yet dynamic in its nature. Cultural diplomacy and the launching of an international arts advocacy day are some examples of initiatives which could be taken to promote and strengthen arts relations between Asian countries.

## “아시아 지역회의는 유기적 예술 생태계를 위한 발판”

### 리수안향 의장에게 듣는 IFACCA 아시아 지역회의의 의미

싱가포르 예술위원회는 IFACCA 아시아 지역회의 발족부터 의장국을 맡아왔다. 아시아 지역회의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싱가포르 예술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아시아 지역회원들 간의 공고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IFACCA의 창립 회원으로서 싱가포르 예술위원회는 2002년 IFACCA 조직 안에 아시아 지역회의를 결성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보다 친밀하게 구축하고, 이해와 협력,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003년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회의 정관의 골격이 통과되었고, 2006년 홍콩에서 아시아 지역회의가 정식으로 결성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내가 IFACCA 아시아 지역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싱가포르 예술위원회는 지역회의의 의장 임기 동안 아시아 지역회의 사무국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며, 그간 영국, 홍콩, 몽골, 호주 등지에서 개최된 여러 차례의 연례회의에 IFACCA 사무국과 연계하여 행정력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또한 싱가포르 예술위원회는 아시아 지역회의를 통해 두 개의 협동 프로젝트, 즉 ‘아시아의 예술기금

정책에 관한 편람 제작’과 ‘아시아에서의 예술의 가치 확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왔다. 예술기금 정책 편람의 목적은 예술기금 지원 정책과 실례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반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들 간의 공통점, 예술기금 지원의 모범 사례, 실행 지침을 인지하게 할 것이다. 결국 편람은 예술기금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아 지역회의가 IFACCA 회원국들 사이에서 그동안 어떻게 자리매김해왔고, 어떤 식의 모습이 되길 원하는지 설명해준다면?

아시아 지역회의는 다음의 목표를 갖고 설립되었다. 첫째, IFACCA 회원국들과 아시아의 가맹국들 간의 상호적이고 내부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예술위원회들과 문화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예술위원회와 문화기관의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기 위한 통합적인 기반을 활성화한다. 셋째, 예술위원회와 문화기관들이 정책 입안 및 기금 이슈와 관련한 도전과 기회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넷째, IFACCA의 다음 목표를  
진척시킨다.

- 국제적으로 자원을 창출하고, 공공의 책무를  
위해 예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지원하는 예술 및  
문화기관의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전세계 예술가와  
예술 및 문화 기관, 커뮤니티를 이롭게 한다.
- 지구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예술위원회들과 문화기관들 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 예술위원회와 문화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화와 기술의 변화라는 도전과 기회에 맞선다.
- 예술위원회와 문화기관들의 지식을 통합하고,  
예술의 실재와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을 장려한다.

아시아 지역회의를 설립할 때 어떤 결과물을 기대했  
는가? 현재, 애초의 목적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변화가 있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시아 지역회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에  
설명한 2005년에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으며, 향후 3년간 실행해나갈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답해준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해를 위한 공통 기반, 특히 기초  
예술에 대한 정의와 용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특히 아시아에서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책 입안 과정에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아시아 기금 정책을 해당 지역의 독특한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에 대해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언어로 말하게 되면, 연구와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 수집 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아시아 지역회의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왔다.  
아시아 지역회의 회원국들 간의 방문 교류, 예술가  
교류, 기관 간 협력에 관한 MOU 체결과 예술 협업이  
늘고 있으며, 이는 지역회의의 애초의 영역 이상의  
것이다.

특정한 의제를 지시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예술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제공하고, 기회를 창출하려고 한다. 예술은 창조적인  
산업이며,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문화 외교'와 '국제 예술 가치 확산의 날 제정'  
등의 행동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및 번역 **임수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